

개원의 포럼 III

심미 보철을 위한 연조직 처치

한웅택 원장

광주 미르치과병원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치아의 손상과 상실을 치료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보철치료가 시행되어지고 있다. 보철치료를 시행하는데 있어 심미에 대한 환자의 기대와 요구가 높아져 가고 있다. 다양한 형태(수평적, 수직적, 복합적)의 치주조직 결손은 심미적인 보철물 제작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유발한다. 환자의 심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다양한 술식들이 개발되었고 시행되어 지고 있다. 다양한 술식들 중 지대치 주위의 치은성형을 목적으로 한 연조직 이식술과 인공치 주위의 치은성형을 위한 연조직 처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심미적인 보철물 제작을 위한 치주조직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손실된 치주조직을 재건하는 술식으로 연조직 이식술과 경조직 이식술이 있다. 다양한 술식이 소개되어지고 있지만, 연조직 이식술만으로 성공적인 수복을 보였다는 보고들을 자주 접할 수 있었다. 연조직 이식술만을 사용한 술식으로는 크게 유리치은 이식술, 결합조직 이식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파생되어진 다양한 술식들이 소개되고 있으며, 각각의 술식에 따른 적응증과 장단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술식들에 따른 증례를 살펴 보겠다.

상실된 치주조직을 재건하기 위해 연조직 이식술을 시행하여 환자의 기대와 요구에 맞는 보철물을 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연조직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식편의 수축으로 인한 치주조직의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 향후 연조직 이식술의 안정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겠다.